

정보의 바다 속에서 글쓰기

정 주 아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글쓰기교실 연구원

컴퓨터의 활용 범위가 그다지 크지 않은 필자도 문득 'IT 강국'에 산다는 사실을 실감할 때가 있다. 바로 글쓰기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면서 인터넷 검색의 도움을 받을 때이다. 연구실에 앉은 채로 국내는 물론 해외의 학술지에 실린 자료의 현황과 소재지를 확인하고, 심지어는 내용까지 볼 수도 있다. 과거에 도서관을 찾아다니며 장서 기록카드를 일일이 확인하고, 그 내용을 필사하거나 복사하면서 공부한 세대라면 요즘 학생들은 너무 쉽게 공부를 한다고 말할 법도 하다. 이런 추세라면 낡은 책들이 꽃힌 서가에서 먼지를 마시며 몇 십 년 혹은 몇 백 년 전의 시간과 직접 해후하는 일은 선택 사양으로 밀려날 가능성도 있다. 매체적 환경이 학문연구의 풍속도를 바꾸어 놓은 것이다.

글쓰기교실은 글쓰기에 필요한 자료 수집 방식이 바뀌었음을 생생하게 감지할 수 있는 곳이다. 상담을 신청하는 학생들이 아직 학문적 글쓰기에 익숙하지 않은 신입생들인 데다가, 아직 자료 정리 단계라 미완성인 글을 가지고 찾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상담 준비를 위해 리포트들을 읽다 보면, 거의 예외 없이 인터넷에서 논문, 신문·잡지의 기사, 사전적 용어, 도표 등을 인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인터넷이라는 정보 수집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학문적 글쓰기의 교육이란 불완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환경의 변화는 제반 관련 문제의 양상도 바꾸어 놓는다. 리포트를 판매하는 사이트에서 글을 구입하여 짜깁기하거나, 타인의 블로그에 실린 서평을 이름만 바꾸어 제출하는 표절 혹은 도용의 사례는 이미 정보화



시대가 낳은 학문적 부작용의 전형적인 예가 되었다. 이러한 행위는 연구자의 양심을 저버렸다는 점에서 물론 비난 받을 만하다. 그러나 적발과 처벌에 앞서 돌아봐야 할 사실도 있다. 사고 수준이나 내용적 완성도가 높은 글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그것을 뒷받침할 자료 및 정보의 소재를 가르치고 배우는 데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것은 아닌가라는 점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인터넷 상의 정보를 악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용하는 예를 몇 가지 살펴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글쓰기교실에서 상담을 진행하면서 꼼꼼히 살펴보는 부분 중의 하나가 각주와 참고문헌이다. 리포트의 내용과 형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수준을 반영하는 척도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각주와 참고문헌을 검토하다 보면 해당 연구 분야에서 전혀 알려지지 않은 연구자가 쓴 논문이 게재 학술지명이 누락된 채 인용된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해당 주제에 관련된 논문을 논문 판매 사이트에서 구입하여 참고하면서 제대로 인용법을 지켜 각주를 달아준 경우이다. 논문을 쓴 이의 이름, 논문의 제목과 인용 구절까지 정확하게 기재하였으니 애초에 숨기려는 의도는 없었던 셈이다. 공인된 고급 자료들이 있는 곳을 모르니 일반 포털 사이트를 검색하여 유료 논문 판매 사이트의 검증되지 않은 자료를 끌어다 쓴 것이다. 다른 일례로 논문에 사용된 핵심 용어나 개념의 의미를 인터넷 백과사전 위키피디아(Wikipedia)에 실린 대로 서술하는 경우가 있다. 알다시피, 위키피디아는 여러 국가의 인터넷 유저들이 참여하여 각 항목에 대한 설명을 업로드하고, 그 공동 작업의 결과를 무료로 참고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온라인 백과사전이다. 해당 전문 용어에 대해 나름대로 공부를 했다고 자부하는 이들이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어떤 학문적 검증도 거치지 않은 이상 위키피디아에 등재된 내용들은 아직 개인적인 의견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보아야 한다.

위의 두 가지 사례는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정보의 풀(pool)에서 공적 글쓰기의 근거를 끌어 왔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인터넷을 일찍 접한 세대라 하더라도 비록 그 체계에는 익숙할지 모르지만, 정확한 정보를 취사선택하는 안목까지 갖추었다고 볼 수는 없다. 제대로 된 정보가 있는

곳을 배우는 것은 그러한 안목을 기르기 위해 필수적인 사항이다. 업로드 된 내용을 제대로 검증하고, 그 검증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는 운영자가 있는 사이트를 찾아야 한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국립 도서관 및 대학 도서관, 해당 학문영역의 학술 사이트 등은 믿을 수 있는 정보원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보를 수집하는 당사자에게 온갖 잡동사니들을 헤치고 끝까지 옥석을 분별해 내려는 의지가 있느냐의 여부라 할 것이다. 모르는 것을 묻고, 손쉬운 방법이 전부가 아님을 인정하는 태도, 즉 일차적인 정보를 지식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컴퓨터만 켜면 어디든 널려 있는 정보들 속에서 지식과 정보를 분간하는 일은 점점 어려워진다. 손쉽게 검색한 내용을 바로 리포트에 옮겨 적는 것은 일시적으로 이러한 분간에서 오는 수고로움을 덜어줄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식과 정보의 차이란 ‘아는 것’과 ‘들은 것’의 차이와 같다. 지식은 ‘아는 것’, 즉 ‘나’의 사유와 판단 속에서 해석되고 정리된 내용이다. 개인의 가치관을 담은 것이기에 고유하고 그만큼의 가치를 갖는다. 대학은 지성인의 산실이지만, 엄밀히 말해 지식을 알려주진 않는다. 그보다는 지식 습득의 방법을 배우는 곳이라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강의를 통해 다양한 영역의 지식을 접하고, 앞선 시대의 논의들을 배운다. 어떤 사건이나 현상에 대한 해석을 시도하고, 나의 의견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즉, 보편적인 정보들을 ‘나’의 지식으로 만드는 과정을 반복하여 연습하는 것이다. 때문에 지식의 전달에는 ‘나’의 명예와 책임을 다한다는 자세가 전제된다. 세상에 대해 ‘나’를 드러내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반면 정보는 ‘들은 것’이며 아직은 ‘나’의 것이 아니다. 어딘가에서 수집한 것이며, 그것이 지식이 되려면 개인의 취사판단과 적극적인 해석의 노력이 따라야 한다. 정보는 열린 가능성이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일 수도 있다. 물론 학문적인 글쓰기는 ‘나’의 관점으로 재정립된 지식을 통해 서술되어야 하고, 정보를 지식으로 끌어 올리는 작업의 과정은 궁극적으로 ‘나’를 성장시키는 경험이 된다.



정보의 수집은 글쓰기를 위한 초보적인 준비 과정이며, 그것이 글쓰기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정보의 바다에서 익사하지 않고 즐겁게 수영하기란 만만치 않다. 자료가 너무 많아서 홍수를 이루었을 때, 글쓰기가 보다 쉬워진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제대로 된 것을 가려내기 위해서는 '나'의 안목 또한 높아져야 하기 때문이다. 믿을 만한 안전지대를 수소문하는 적극성, 안전지대까지 헤엄쳐나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깃발을 꽂고야 마는 의지. 이 두 가지는 격랑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수칙이다.